

# 韓方治療 臨床例

學術委員 李 在 英  
(京畿 民衆 韓藥房)

## 1. 神經痛

### 五積散 (和劑局方 方合, 中統13)

창출 진피 복령 반하 당귀 후박 백작약 천궁 백지 지각 길경 건강 향부자 계피 마황 감초  
대추 各15. 17味

이 처방은 和劑局方에서 나온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처방이다. 平胃散과 二陳湯과 四物湯에서 지황을 빼고 계피 건강 마황 백지 길경을 加하였으니 寒冷을 없애고 風邪를 발산시키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처방이다. 그래서 神經痛의 輕症으로 완만한 좌골신경통 따위에 쓰인다. 오래동안 寒冷 자극을 받아 발병한 경우인데, 맥沈하고 冷症, 腹部弛緩 긴장이 약한 것을 목표로 한다. 맥이 沈弱할 때는 부자를 加하여 쓰기도 한다.

1996년 10월에 이웃에서 식당을 하는 김○○씨(46세)인데 무릎과 허리가 약간씩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五積散 한제를 지어 달여 주었더니 모두 좋아졌다고 하며, 자기 동서(56세)도 자기와 비슷한 증세라고 하여 약을 요구하기에 이 처방으로 또 한제를 지어 달여 주었다

이 처방중의 백지는 구리대뿌리로서 氣는 溫하고 진정, 진통제로서 두통 현훈 신경통에 쓰인다. 길경은 도라지 뿌리로서 微溫하며 去痰 排膿劑인데 粘痰 膿腫에 쓰인다.

지각은 탱자를 썰어 말린 것으로 약맛은 微寒하며 芳香苦味 건위제로서 胸滿痛, 腹痛, 咳痰에 쓴다.

香附子是 氣는 平하고 芳香健胃, 진정 진통 驅瘀血劑로서 소화불량, 설사, 복통, 월경불순, 부인병에 쓴다.

五積散은 調中順氣하고 風冷을 없애고 疾飲을 삭이며 脾胃宿冷과 腹脇腸痛 胸膈停痰 嘔吐 惡心을 고치고 또 外感風寒 內傷生冷을 고치며 또 婦人血氣不調 心腹痛 月經不均 혹은 閉不通에 좋다고 하였다 胃炎에 쓰고 신경통에도 쓰고 소아마비에도 쓰이며 產母의 難産에도 쓰이는데 이 때에는 오적산 달인 물에 식초 1슴을 加하여 쓰라고 되어있다.

鶴膝風(무릎이 붓는 관절염)에도 쓰이는 좋은 처방이다.

## □ 학 술

### 2. 夜尿症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下焦가 약한 것, 腎虛症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해 있는 文人協會 회원 중의 한분은 아들이 야뇨증이 있어서 가끔 온다. 좋아졌다가 또 나빠진다고 한다 나는 이런 경우에 두가지 처방을 쓴다.

八味丸과 柴胡桂枝湯이다.

이 아이에게는 八味丸을 주었다. 결과는 많이 좋아졌다.

나는 일본에서 하듯이 환제나 에키스과립제(顆粒劑)를 많이 쓴다 이 과립제는 일반 약국에서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150여종 이상 제약회사에서 나온다. 나는 이것들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동양 3국의 한의서를 수백권 갖고 있는 자신으로서 고방을 위주로 하는 처방들을 많이 쓰게 된다.

일상생활이 바쁜 요새 가정생활로 봐서 이런 과립제(약을 다려서 전분을 넣어 과립으로 만든 것)를 주면 복용하기도 편리하다

八味地黃湯(八味丸)은 방약합편 上統 40에 있는 六味地黃湯에 육계 부자를 加한 것이다. 원래 이처방은 고방으로 金匱要略에서 나온 것인데 육계, 附子를 빼고 方藥合編에 실린 것이다.

끝으로 柴胡桂枝湯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柴胡桂枝湯(傷寒, 金匱)

시호5, 반하4, 계지 작약 各 2 5 황금 인삼 대추 各 2 감초1 5 생강2

이 처방을 夜尿症에 쓰면 잘듣는다.

일본에서 경험하여 발표된 처방이므로 나는 대체로 이 두가지 처방으로 좋은 효과를 얻었다.

### 3 難聽

小柴胡湯合 香蘇散(方合, 中統 25, 17)

시호7, 반하5, 생강4, 황금 인삼 대추 各 3, 감초2, 향부자4, 소엽1 0, 진피2 5

귀가 잘 안들리는 難聽의 원인에는 外耳性인 것과 內耳性인 것이 있다고 한다 外耳道疾患, 耳管中耳炎, 中耳炎, 耳硬化症, 中毒性內耳炎, 梅毒 老人性難聽, 메니엘씨病, 聽神經腫

瘍, 아데노이드 따위에서 難聽이 나타난다고 한다.

張景岳이라는 名醫는 難聽의 原因은 火閉 虛閉 竅閉 邪閉 氣閉 등 5종으로 나누었다  
火閉라고 하는 것은 逆上으로부터 오는 난청으로 뇌출혈 고혈압증 혈도증 따위에서 오는 것으로 (三黃)瀉心湯·黃連解毒湯·防風通聖散 등이 쓰여진다.

虛閉는 과로나 노쇠 병후 등에서 오는 것으로 八味丸이나 滋腎通耳湯 등이 쓰여진다.

竅閉라고 하는 것은 外耳道가 외상따위로 막혔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邪閉라고 하는 것은 中耳炎 등에서 오는 것으로 葛根湯 小柴胡湯 瑩桂五味甘草湯 따위가 쓰여진다.

氣閉라는 것은 감기 뒤끝에 氣의 鬱滯로부터 오는 것으로 耳管閉塞 따위에서 오는 난청으로 小柴胡湯合 香蘇散 따위를 쓴다.

나의 경우 어린 사람들이 위의 기폐와 같은 원인으로 감기 뒤끝에 난청이 생겼을 때 小柴胡湯合 香蘇散을 주거나 八味地黃湯(八味丸)을 주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처방은 滋腎通耳湯이다.

#### 滋腎通耳湯(萬病回春)

당귀 천궁 작약 지황 지모 황백 황금 시호 백지 향부자 각4, (g) 10味

위 처방은 萬病回春 耳病에서 나온 처방인데 흥격이 불쾌하면 청피 지각을 소량 加味하고 되어 있다.

위에서 열거한 各 方들은 다음과 같다

#### 瀉心湯(三黃瀉心湯) (金匱要略)

대황4, 황금 황련 각 2(g)

이 처방은 다음의 黃連解毒湯과 함께 古方家들이 많이 쓰는 처방중의 하나인데, 변비가 있는 充血性이 있는 고혈압 각혈 토혈 녹혈(코피) 자궁출혈 痔出血 피부병 혈행불순증의 上氣感 갱년기증상 火傷 따위에 쓴다. 이 처방에 附子를 加하면 附子瀉心湯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손끝 등이 微冷이 있으면 이 처방을 쓴다.

#### 黃連解毒湯(후방, 外台, 方合下統12)

黃連 黃芩 各 2, 黃芩4, 梔子2.

回春에서는 柴胡3, 연교 芍藥 各 2를 加한다.

이 처방은 瀉心湯과 비슷한 경우에 쓰이는데 변비가 없을 때 쓴다.

## □ 학 술

혈압이 높아서 직장 신체검사시에 一時的으로나마 쓰는 혈압강하제를 달라기에 이 처방 정제가 있어서 주었더니 효과가 있었다며 얼마후 또 들린 분을 보았다.

영桂五味甘草湯(영桂味甘湯)(金匱要略)

복령6, 계피4, 오미자3, 감초2,

몸의 痰飲을 없애주는 처방으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머리가 몽롱한 경우에 쓰는 처방이다. 邪閉로 인한 난청에 쓰여진다.

### 4. 만성하리

斷痢湯(外台秘要)

반하5g, 복령4g, 인삼 황련 각 2g, 감초1.5g, 생강 대추 각 2g 부자1g (八味)

수원 사람인데 忠北에 가서 살다가 들린 사람이다. 설사를 하는데 이약 저약 써도 깨끗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

설사(下痢)는 1日 2회 이상 대변을 묽게 보면 보통 설사인데 몹시 심하게 하는 경우는 甘草心湯이나 眞武湯도 쓴다. 이것 저것 써도 낫지 않는 만성설사에는 斷痢湯이 좋다. 위 사람에게 위 처방을 5첩 주었더니 그후에 와서 곧 나왔다고 했다.(전에 한번 소개함)

나의 경우 70세가 넘으니 작년부터 老人性便秘가 심하게 온다. 그래 하도 심할 때는 많은 처방을 연구하여 쓰다가 아래 처방도 써본다.

巴豆丹(四象方 少陰人): 巴豆 1개

이 처방대로 巴豆 1개를 먹으면 조금 있으면 설사가 나온다. 巴豆는 극약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설사는 심하여 보통 약으로 잘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위의 斷痢湯을 복용 하든가 양약 明珠丸도 써본다.

### 5. 便秘와 右脇痛

加味逍遙散(丹梔逍遙散)(和劑局方)

당귀 작약 백출 복령 시호 각 3, 목단피 산치자 각 2, 감초1.5, 생강 박하엽 각 1g.

이 처방은 虛症體質에 나타나는 肝障礙가 있고 便秘가 있을 때 쓰는 처방인데 특히 婦人들에게 많이 쓰여진다. 남자들은 老人들이 허약해지면 변비와 右脇通이 나타나는데 이 처방을 쓰면 좋아지기도 한다. 나는 최근 이 처방을 가끔 쓰기도 하고 補中益氣湯에 도인 마자인

各 3, 홍화1,을 加하여 쓰기도 해봤다.

(日本漢方の 臨床 - 第20卷 第10號 p.41 矢數道明 박사의 주장)

柴胡劑는 古方에서 많이 쓰는데 언제나 虛實의 순서가 小柴胡湯 다음은 柴胡姜桂湯 加味逍遙散 순서이고 가장 虛할 때 補中益氣湯을 쓰게 돼 있으니 위와 같이 가미소요산이나 보중익기탕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나의 경우 변비와 右脇痛에는 역시 潤腸湯이 좋은 것 같았다.

당귀 숙지황 건지황 各 3g, 마자인 도인 행인 지각 후박 황금 대황 各 2g, 감초1.5

### 6 피부병

요새 봄이 오는 환절기여서 그런지 피부병 환자가 더러 온다. 그래서 아래의 처방을 써봤다.

#### 十味敗毒湯(華岡青洲)

시호 독활 앵피 방풍 길경 천궁 各 3g, 복령4g, 형개 감초 생강 各 1.5g, 연교3g, 의이인 5g

이 처방은 人蔘敗毒湯을 가지고 加減하여 日本 華岡青洲씨가 만든 것으로 여기에 연교 의이인을 더 가미한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20代 전후에만 체질개선 약으로 투여했는데 최근에는 40대 50대 남성들에게도 투약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최근 金모씨(38세)는 다른 처방 溫清飲 加味를 주었더니 좋지 않아 심미패독탕을 주었고, 차로 야채장수하는 任모씨(49세)에게는 방풍통성산을 주었더니 좋지 않아서 심미패독탕을 주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여하간 이 처방도 장기 복용해야 한다고 하며 계속 복용을 권장했다.

### 7. 全身麻痺

#### 加味補中益氣湯(回春-麻木門)

황기 인삼 백출 진피 당귀 各 4g, 승마 시호 목향 各 2g, 향부자 청피 천궁 各 3g, 계피 감초 1 5g, 생강 대추各 1g

위 처방은 萬病回春의 麻木門에 있는 처방이다. 麻木이란 十指盡麻와 아울러 面目皆麻라

## □ 학 술

했으니 손이 마비되고 얼굴까지 모두 마비된 것을 말하니 사람이 소화기능이 약해져서 손, 얼굴, 다리까지 마비되는 수가 있다. 方藥合編 上統 22 補中益氣湯에도 보면 渾身麻氣虛 加모과 오약 향부자 청피 방풍 천궁 少加桂皮라 했다.

만병회춘에 추가하여 말하기를 목향 맥문동 향부자 강활 방풍 오약을 加味하여 써도 좋다 하였다.

30년전 1971년 한약방 허가도 받기전에, 처음 35세부터 한약을 연구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교회 교인의 동생이 수원 서울 농대에서 박사 학위도 받고 미국에 1년 유학도 마치고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제주도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갔다 왔는데 전신이 마비되었다고 한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퇴원하여 집에 있다고 했다.

그분의 형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에 나는 이것은 氣虛麻木이라는 증세인데 소화기능이 약해지면 오는 것으로 설사한 일 없느냐 했더니 제주도에 설사를 했다는 것이다.

나보고 약을 해달라기에 나는 약재값만 주면 2~3일에 한번씩 가보고 증세에 따라 침약을 지어 주겠다 하였다. 대학병원에서도 손든 환자이니 지프라기도 잠을 판이다. 꽤히 승낙하였으므로 내가 가보았다. 전신마비 증상은 너무도 심했다. 목부터 팔 다리가 모두 마비되고 음식은 조금도 먹지 못했고 잠도 못자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보중익기탕 3첩을 지어다 주고 2일후에 가 보았다. 이렇게 하기를 초가을부터 했는데 겨울내내 환자를 방문했다. 처음은 잠이 조금씩 오고, 목이 풀리고 팔도 풀리기 시작했다. 잠이 안오므로 귀비탕류의 여러가지 처방으로 그때 그때 바꾸기도 했다 그랬더니 앓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잠도 자고 식사도 조금씩 하다가 가까스로 일어나 무엇을 짚고 방안에서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겨울내 6개월 정도 2~3일에 한번씩 다니며 많은 처방을 연구하여 주었으니 나도 지쳤다 나중엔 무릎 아래가 좋다고 하기에 나는 그만 손을 떼겠다고 하였다 그분은 그후 침도 맞고 나아서 학교에 출근하게 되었다

이분은 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있다.

나는 황해도 연백 연안에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책을 좋아해서 이책 저책 많이 읽으며 20세에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가정의학 전서도 노트에 필기해 가며 읽었다 그리고 동네 어른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다 해방 직후 썰파제 '다이아젠'은 효과가 좋았다. 사변당시 군에 입대시도 의무계통에서만 있었다. 한의대 편입도 하려했으나 못했다 그래서 혼자서 한방의서를 일본서적 국내서적 중국서적 등을 닦치는 대로 구해다가 깊이 연구했다. 나의 소원은 자식대에서 완전히 이루었다. 두 아들이

모두 전문의사가 되었으니 말이다.

끝으로 전신마비에 쓰는 처방을 하나 더 소개하겠다. 이 처방도 萬病回春 麻木門에 있는 처방이다.

加味八疝湯(回春 麻木門)

당귀 작약 천궁 숙지황 진피 반하 각 2.5g, 백출6g, 복령5g, 인삼 우슬 방풍 강활 각 1.5g, 시호 계피 감초 대추 생강 각 1.0 g.

